전법 일기

학생들의 굳건한 다짐
"108배 100번 할래요"

학교 법당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 아침에는 평소 등교시간보다 30분이나 이른 시간임에도 예불에 참여하기 위한 학생들로 법당이 꽉 들어찬다. 칠정례(七頂禮)가 끝나고 반야심경을 외울 때쯤에는 불단 앞쪽과 어간에도 자리가 없어 복도에서 삼배를 올리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다.

졸업생 중엔 3년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예불에 참석하며 자아를 탐구하고 인격적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학생도 있었다. 1학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얼굴에 불안함과 우울함이 보이곤 했는데 2학년이 되어서는 얼굴이 편안해지더니 법당에 오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학기말이 되어서는 대표로 집전까지 맡았다. 3학년이 되어서는 "법사님 같은 교법사가 되겠다"는 말을 하더니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교직이수를 하고 있다.

나 또한 학창시절 법사님 덕분에 청소년 전법을 시작했는데 또 한 학생이 나로 인해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교법사로서 전법을 해나갈 길이 어려운 길이라 제자가 힘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리고도 싶었지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꼭 그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로도 갈 수 있기에 꿈을 응원해주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이다. 학생들은 한 시간이라는 시간동안 점심공양도 하지만 잠시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고 운동장으로 나가 축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법당에서는 두 명의 학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108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이 108배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바로 '헛소문' 아닌 '소문' 때문이었다.

종교학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두 학생이 순수한 얼굴로 질문했다. "법사님!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108배를 하면 염주를 주시나요?" 그에 나는 웃으며 "그럼~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선물을 줘야지"라고 말했고, 학생들은 바로 법당에서 108배를 시작했다. 108배를 다 마친 학생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참회 발원문을 들으며 108배를 하니 마음이 경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점심시간마다 법당에 와서 108배를 100번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속으로는 며칠이나 갈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학생들은 여전히 1만800배 기도를 진행 중이다. 기도가 끝나면 도대체 어떤 선물을 줘야할지 고민이 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미 부처님이라는 선물이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것 같다.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네.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언제나 큰 광명을 놓고 있네'라는 시 구절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된 능력과 빛이 있다. 학생 개개인이 잠재된 능력을 찾고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법사로서 나의 큰 원이다. 앞으로도 항상 일체유심조의 법문을 간직하며 부처님 제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그려나가고 싶다.



김가연
광동고 교법사



송마나의 **시절인연**

편견 없는 어린이처럼…

이팝나무꽃이 폭설처럼 흩날리는 오월이다. 아카시아꽃 산사나무꽃 찔레꽃이 서둘러 흰빛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구름은 하늘 높이 노닐고, 청보리밭 뒷산에서는 뻐꾸기가 신록의 숲으로 들어오라고 노래한다. 우리를 부르는 오월의 환한 웃음소리에 어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오.

어린이 대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이리저리 뛰놀고 있다. 비릿한 연둣빛을 흔들어 깨우는 풋풋한 나뭇잎과 부풀어 오른 장미꽃보다 어린이들의 자유 발랄한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신생의 설렘으로 부풀게 한다. 유난히 5월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것은 어린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계관 시인 워즈워스(1770~1850)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가슴 설렐 때는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노래했다. 예수 또한 우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어린이는 인생의 무지개라는 것이다.

어린이는 아무 곳에서나 떼를 쓰고, 배가 고프면 운다.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염치나 거리낌이 없다. 딱딱한 예절이나 간교한 속임수를 모른다. 이별의 슬픔도 분단의 아픔도 모른다. 어린이는 순수 그 자체다. 그래서 장자는 참만고일성순(參萬古一成純)이라고 말했는지 모른다. 인간은 자고로 순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림 · 최주현

어린이는 대공원에 피어나는 튤립 꽃과 말을 하고, 철장 안에서 목을 길게 내민 기린과도 이야기를 나눈다. 사나운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구불거리는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 만난 아이와 공놀이도 함께 한다. 그들에게는 분별이 없다. 꽃과 동물이 나와 다르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놀이터에 나오면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뛰논다. 지배하는 자나 피지배자의 구분이 없는 일체의 세계. 사람은 누구나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이는 알고 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죽음도 없다. 말 못 하고 움직이지 않는 인형을 곁에 두고 말을 건다. 인형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인 것이다. 어른들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사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는 생과 사의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돌아 볼 겨를이 없다. 공원에서 활짝 핀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어린이가 꽃잎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겠는가. 현세가 끝나면 내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오늘을 죽는 것이요, 오늘을 죽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것이다"라고 현재(鉉齋 1919~2012) 선생님은 말했다. 생사는 일여(一如)다. 어린이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용지물이다.

나는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떠올려 본다. 어린이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동한다. 무엇을 붙잡고 움켜쥐려는 집착 없이 마음에서 이끄는 데로 움직인다. 슬픔, 두려움, 후회 등의 번뇌에 휩싸이지 않으며 죽음이라는 개념은 애당초 없다. 마치 파란 하늘에 구름이 그저 흘러가듯, 머무는 바 없이 마냥 뛰어노는 어린이의 마음.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오월이었으면 좋겠다. 〈작가〉

기자칼럼

보살님이 교회서 기도한 이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년째 포교를 하는 비구니스님은 어느 날 불자인 보살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찬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그 보살님은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스님과 상담도 하고 기회가 될 땐 함께 축원과 기도를 올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불심을 닦아온 사이기 때문. 어떻게 된 연유인지 스님이 묻자 보살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일요일 예배에 데리고 갔는데 좋았어요."

스님은 특별히 내색하지 않고 보살님에게 자신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보살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신은 간절하다"고 했다고. 스님은 이웃종교에 비해 병원법당 여건이 좋지 않아 한 달에 한 번 법회 모시기도 힘든 상황이니 어디라도 의지하고 싶은 보살님의 절실함을 느꼈다고 한다.

얼마 전 통화한 병원법당 지도법사스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다. 병원 주위엔 대형교회가 즐비하고 기독교에선 병원 봉사자들이 매일 찾아온다고. 기도비나 불사금은 고사하고 환자의 거동을 도와 법회를 볼 봉사자조차 드문 병원법당 현실에 스님은 통화 내내 슬픔에 잠긴 목소리였다. 다행히 십자가를 찼던 보살님은 얼마 전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봉행한 법회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은 뒤 "법회를 보니 행복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고 한다.

병원포교를 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을 취재할 때면 "신심 깊던 불자도 병원에서 삶을 마감해야 할 때 개종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말을 듣곤 한다. 환자가 되니 불교는 날 찾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계층포교를 시스템이 아닌 개인 원력에 의지한 결과다.

사홍서원의 첫 번째인 '중생무변서원도'는 어디를 향하고, 자비의 등불은 어느 곳을 비추고 있는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이때 다시금 돌아볼 일이다.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눈길 교통사고에
산산조각난 가장의 꿈

네팔 이주민노동자 카미씨, 가족 위해 공장일에 농장까지
눈길 교통사고로 고관절탈구 · 다리골절…병원비 · 빚 2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